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2. 출장목적: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회의 본회의 및 농업분과회의 참석
3. 출장지역: 중국 위해(威海)
4. 출장기간: 2007년 10월 22일~25일(4일간)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국제농업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전형진

6. 출장일정(3차회의 일정)

일 시		일 정	주요활동
10.23(화)	09:30-12:00	제조업분과 회의	회의참석 및 대책논의
	14:00-17:30	제조업 및 농업분과 회의	회의참석 및 대책논의
10.24(수)	09:30-12:00	본 회의, 제조업 및 농업분과 회의	회의참석 및 대책논의
	14:00-17:30	제조업 및 농업분과 회의	회의참석 및 대책논의
10.25(목)	09:30-12:00	본 회의, 서비스 및 투자분과 회의	회의참석 및 대책논의
	14:00-17:30	농업, 서비스 및 투자분과 회의	귀국
10.26(금)	09:30-17:30	본 회의, 서비스 및 투자분과 회의	귀국

II. 주요 출장 결과

1. 농업분과회의 개요

□ 참석자

- 한국측: 외교통상부 홍영기 과장, 농림부 박창용 과장,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 등 16인
- 중국측: 상무부 陳寧(Chen Ning) 과장, 상해 WTO센터 姚為群(Yao WeiQun) 부원장 등 10인

□ 10월 23일과 24일 진행된 농업분과회의에서는 지난 9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의 합의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측이 수정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양측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회의내용은 10월 25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되었음.

○ 한국측(박창용 농림부 자유무역협정과장) 보고내용

- 보고서의 구조와 관련하여 중국측은 농업분야(수산업, 임업분야 포함)의 보고서 목차가 제조업분야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측은 농업분야를 제조업분야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하였음.
- 중국측은 제조업분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업분야보고서 내용중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생산비 및 가격비교, 경쟁력지수비교, 영향분석 부분을 부속서(annex)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한국측은 보고서 문안을 정밀 검토하면서 부속서로 처리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음.
- 중국측은 산관학 공동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제조업분야와 농업분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고, 양측이 주장하는 민감성을 이 결론부분에 병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국측은 제조업분야와 농업분야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결론도 각각 도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한국측은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공동연구단계에서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공동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중 FTA의 시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중국측(姚為群 상해WTO센터 부원장) 보고내용

- 한국측이 보고서 작성에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FTA의 영향분석 부분이 과장되어 있고, 분량이 너무 많고 자세하며,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 많고, 민간연구기관의 연구내용을 그대로 복사(copy)하였음.
- 중국측은 ①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②민간연구기관

의 연구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③FTA 영향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④농업분야와 제조업분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두 분야의 보고서상의 구조(목차)를 통일하고 수치 등이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부속서로 처리할 것 등을 제안하였음.

□ 10월 25일 본회의에서 양측의 농업분과 회의내용 보고에 이어 중국측 張克寧 수석대표(商务部 国际司 副司长)는 ①산관학 공동보고서의 결론은 제조업과 농업분야를 합해 하나로 하고 양국의 민감성 부분을 기술하도록 하며, ②공동연구단계의 보고서는 가급적 사실(fact) 중심의 상황설명을 위주로 하고, FTA의 영향에 대한 예측은 삼가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 한국측 박효성 수석대표(외교통상부 FTA제2기획관)는 중국측의 제안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분과회의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음.

□ 10월 25일 오전 본회의 직후 중국측이 한국측이 제출한 보고서를 대폭 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오후에 진행된 농업분과회의에서는 중국측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하였음.

○ 중국측은 공동연구단계와 협상단계의 논의내용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전 회의에서 수석대표가 제안한 원칙을 강조하면서 중국측의 수정안을 토대로 한국측이 곧바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합의를 도출할 것을 재촉하였음.

○ 한국측은 중국측의 수정안을 곧바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하고, 2주 이내에 한국측 수정안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제안하였음.

2. 농업분과회의 주요 논의내용

□ 한국측 보고서에 대한 중국측의 검토의견

○ 한국측은 3차회의에 임하면서 지난 9월 상해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의 논의 사항 및 중국측 의견을 종합하여 농업분야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중국측은 제조업분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고서의 분량을 줄일 것과 내용상 중국측이 불리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 많다고 지적하고 제조업분야 보고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업분야 보고서의 구조(목차)를 통일시킬 것을 제안하였음.
- 한국측은 현시점에서 보고서 구조를 제조업분야와 일치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우며, 보고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산관학 공동연구단계에 대한 인식

- 한국측이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에서 농업분야의 민감성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측은 공동연구 단계는 정식 협상과 달리 양허제외 비율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이는 협상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였음.
- 중국측은 한국측의 염려사항인 민감분야의 보호장치는 정식 협상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공동연구는 단순한 연구단계이므로 과학적·객관적 기술을 제안하고 결론부분에 이러한 문안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였음.
- 한국측은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FTA 협상 이전의 중요한 단계이며 한국내 농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농산물 양허제외를 근거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였음.
- 한국측은 FTA 협상 개시 이전에 10-10% 양허제외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측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순조롭게 정식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산관학 공동보고서의 구조

- 중국측은 농업분야와 제조업분야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고 통합보고서 결론 부분에 농업분야와 제조업분야에 대한 양국의 민감성을 적시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구체적 보호방안은 공동연구 단계

에서 논의하지 않고 FTA 정식협상 단계로 넘길 것을 제안하였음.

- 중국측은 한국측 보고서 본문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일부 내용을 부속서로 삽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농업분야 보고서 구조를 제조업 분야 보고서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음.
- 한국측은 농업분야와 제조업분야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따라서 두 분야의 결론을 통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FTA 협상 개시 이전에 민감한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한국측은 중국측 요청 부분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만 제조업분야 보고서 구조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측은 한국측 제안의 핵심 내용인 결론부분의 “민감 영역 일정부분 양허제외 이후 정식협상 시작” 문안을 농업분야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고, 중국측은 전체보고서 결론에 제조업분야와 함께 민감성 설명에 한하여 기술할 것을 주장하였음.
- 중국측은 산관학 공동보고서 결론에 양국이 각각 민감하게 여기는 영역을 명기하자고 제안하며 양허제외 비율은 정식협상에서 논의할 사항이므로 공동연구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특히 한국측이 제출한 농업분야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보고서의 핵심이므로 수정하기 어려우며, FTA 협상 개시 이전에 민감한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였음.

□ 중국측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중국측은 농업분야와 제조업분야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자는 제안에 기초하여 10월 25일 본회의 이후 한국측이 제출한 농업분야 보고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 중국측 수정안은 본문과 부속서(annex)로 구성되었으며, ①한국측 보

고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결론부분, 즉 민감성 및 보호장치를 언급하는 내용 삭제, ②주요 민감성 강조 부분을 삭제하거나 부속서로 이동, ③영향분석 부분에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음.

- 중국측 수정안은 본문에서 MCA, TSI 등 경쟁력 지수의 구체적 내용 및 중국의 대한민국 주요 수출 농산물의 목록 및 품목별 영향분석 등을 삭제하고 한국측 보고서의 핵심내용인 결론 부분을 전면 삭제하였음.
- 양국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 및 가격 비교, FTA 영향분석 중 핵심내용 민간공동연구 결과, 민감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및 통계를 부속서로 이동하였음.
- 중국 농업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한국도 일부 가공농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경쟁력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한국측은 양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중국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략적인 수준에서 언급하였음.
- 한국측은 공동보고서의 구조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확답은 어려우나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중국측이 수정안에서 삭제하거나 부속서로 이동시킨 부분 중 중요부분은 본문에 포함하여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음. 특히 결론 부분의 본문 포함, 양국 농산물 가격 및 생산비, 경쟁력 지수 및 민간공동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본문에 삽입하고 삭제된 품목별 영향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향후 수정보고서를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국측은 중국측 수정안으로는 한국농업의 민감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며 보고서 결론 부분에 농업부분의 양허제외 비율을 결정한 후 FTA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국내 여론, 농업인, 국회 등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한국측은 보고서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구조는 형식의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형식과 실질은 다른 문제이고 실질에 해당하는 민감영역 보호장치 마련은 농업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한국측은 중국측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여 2주 이내에 중국측에 송부하고 향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3. 농업분과회의 평가

- 한국과 중국 양측은 3차회의에서 농업분야 공동보고서의 구조와 기술 방식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로 보고서 작성 원칙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아 향후 원칙에 대한 합의, 보고서 문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측은 2008년도 1월중 한국에서 4차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4차회의 이전에 농업분야 실무협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측은 회의 초기 제조업분야와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경쟁력비교, 영향분석, 품목별 피해를 기술한 부분을 전면 삭제하자고 주장하다 회의 말미에 해당 부분을 부속서로 처리하자고 다소 진전된 제안을 하였음. 그러나 한국측의 농업보호장치(일정비율 양허제외)와 관련된 결론부분을 삭제하고 민감성 관련 내용을 부속서로 처리함으로써 한국농업의 민감성의 의미를 최대한 희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측은 지난 4월 한-미 FTA 체결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정식협상 단계에서는 강한 시장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국 정부간 FTA 협상이 정식 개시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FTA 추진시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서는 공동연구단계 및 FTA 협상 개시 이전에 양허제외 비율 확정 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